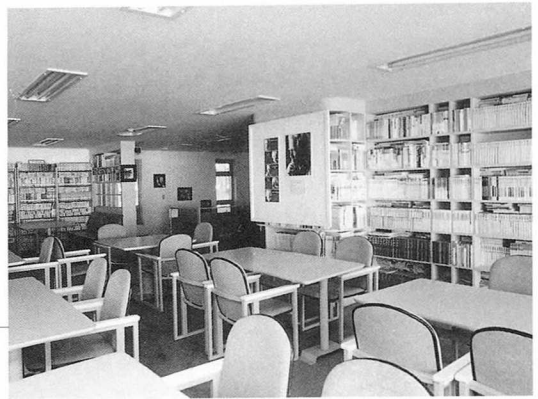


한 문화주의자의 열정으로 쌓은 추리문학의 성채

해운대 달맞이고개의 추리문학관을 찾아서



추리문학관 3층 열람실 모습. 오전 11시인데도 텅 비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나 송정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언덕 밑으로 망망대해와 해운대 해수욕장 전경이 펼쳐지는 호젓한 길로 접어든다. 바로 대한 팔경의 하나로 꼽힌다는 달맞이 고개다. 이곳에 추리문학 전문도서관인 '추리문학관'이 있다.

추리문학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서관은 추리문학관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그 희소성과 상징성은 이곳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화적 광휘를 부여한다. 이 문학관은 《여명의 눈동자》《제5열》(이상 남도출판사)로 잘 알려져 있고, 최근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영화 <흑수선>의 원작자이기도 한 김성중씨가 1992년 사재 30여억원을 털어 세웠다. 건평 5백평, 지상 5층에 지하 1층, 좌석수 332석의 소규모 도서관이지만, 총 3만5천여권 장서 가운데 추리소설 1만여 권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추리문학의 보고다.

코넬 독일의 작품 주인공 이름을 딴 1층 '셜록 홈즈의 집'은 잔잔하게 음악이 흐르는 카페 분위기로 꾸며놓았다. 도서관 입장료 3

천원을 내면, 이곳의 커피와 홍차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책과 커피향이 어우러져 독서 문화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다. 2층 '여명의 눈동자'는 마치 전시실을 연상시킬 정도인데, 김씨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작가들의 대형사진이 도스토예프스키부터 헤밍웨이까지 1백여점이나 걸려 있다. 3층과 4층은 본격 열람실이다. 넓은 창으로 해운대 앞바다가 시원하게 내다 보이는 3층은 국내 추리문학서와 아동 및 일반도서가 비치돼 있다. 4층은 미국, 일본 등지의 추리소설 원서, 각종 잡지가 구비돼 있다.

추리문학관은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다양한 문화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추리작가와 독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떠나는 '겨울추리여행', 사계의 전문가들이 지식 전문분야에 대해 강의하는 '지식강좌',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지역 시인들이 시낭송회를 여는 '금요일의 시인들', 그 외 '자유발언대' '추리소설 창작교실' '추리문학관 문화학교' 등이 비정기적으로 회원들을 맞이한다. — 부산·강성민 기자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을 꿈꾼다”

추리문학관장 소설가 김성중씨



추리문학관장 김성중씨(62)는 현재 도서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달 5백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찾아오는 이는 적고, 그럼에도 사서 월급과 공간 구입비는 꾸준히 나가기 때문. 김씨는 추리문학관 같은 전문도서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술, 과학 등 분야별 사립 전문도서관이 많이 생

겨 전문도서관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리문학관을 세우게 된 계기는?

“런던 셜록 홈즈 박물관을 찾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싼 입장료를 내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그래서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을 세워보자고 생각하게 됐다.”

사람들이 정말 추리소설을 읽기 위해 오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시험공부하러 오는 중고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추

리소설을 대중소설의 범주에 묶어 경시하는 우리 문단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인식 때문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대중소설이다. 외국의 경우 영화로도 만들어진 《붉은 10월》 같은 추리소설은 그 뛰어난 작품성 때문에 포크너나 스타인벡을 밀어내고 미국 강단에서 텍스트로 활용되기도 한다.”

책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

“사서 한명을 두고 매번 신간을 구입할 때마다 컴퓨터에 서지사항을 입력해놓는다. 하지만 비싼 대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해, 대출이나 열람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 현재 추리소설을 1만권 정도 구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리 모아봤자 그 수준이다. 추리소설을 내는 출판사들이 많이 줄었다.”

경영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리던데, 타개책은 없는가?

“지식강좌와 시낭송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지만, 돈이 벌리기보다는 더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 문화행사를 통해 수익을 남긴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두들 알 것이다. 이번에 외국 나갔다 오면서 이 문제로 많이 고민했는데, 1층을 책방으로 개조하는 방안, 혹은 지식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카페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원래 사립도서관은 일체 정부지원이 없지만, 올해부터 부산시청에서 얼마간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돼, 당장의 어려움은 넘길 수 있을 것 같다.”